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총장선출제 필요, 소통 중요하지만 방법론 고민해봐야

(차기 총장)

▶1면에서 이어짐

구성원 모두 참여해
총장선출제도 도출해야현행 총장선출제,
민주주의 시대 정신 반영해야

▶사회 : 현행 총장선출제에 대한 평가는?

이성근 : 우리학교 총장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가 상당히 부족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민주적인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변화된 총장선출제는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다른 발전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구성원 대표의 뜻이 한 방향으로 향해야 가결로 밸런스를 이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현 : 직원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선출제를 바꾸겠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우리학교 설립 이후 있었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이 학교를 단기간 내에 발전시킬 학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그러나 최근 자율운영 시행 등 정책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라고 본다면, 예전처럼 범인 이사회가 단독 또는 독점적으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현재 학교를 움직이는 모든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윤단비 : 기본적으로 대학과 구성원은 협력에 따라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권을 가지고 총장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선출방법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도 어떤 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효형 : 총장께서 펼치는 정책과 행보에 학내 구성원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희완 : 현재 구성원들은 총장선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학네트워크가 총장선출 모델의 변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 : 현행 총장선출제 모델이 신설

총장선출제 만장일치 합의, 지난 10년에서 의미 찾아

박자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3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의원들은 '총장선출제 연구특위'가 만든 총장선출제 모델을 이건 없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의결은 처음으로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생각과 공감대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법률에 이번 모델을 제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총장선출제 모델의 핵심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 설치다. 교수, 직원, 학생, 법인으로 총장후보를 구성하고 총장후보는 심사를 통해 3~5인의 총장 후보를 추린다. 후보를 대상으로 구성원 투표를 진행해 득표 상위 2인 중 1인을 법인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총장선출제 모델
이전부터 바꾸고자

총장선출제를 바꾸고자 했던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1월 제11대 조경원 총장이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하락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한 이후, 제12대 총장에 김병목(법대) 교수가 임명됐다. 당시 법인 이사회 회의를 거쳐 임명된 총장에 교수 신임 투표 절차를 거친 점에 대해서 학생 대표는 총장선출제 개정 대신 법인 이사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개방이자'를 요구했다. 결국 총장선출제 논의는 힘을 잃고 조인원 총장이 3선을 하게 됐다.

조인원 현 총장의 3선 이후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총장선출제 모델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2년 뒤인 2016년 총장선출제 모델을 법인에 제출했다. 이 모델은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의 의의를 살펴보면 학생 참여 확대와 함께 학생 참여 확대를 목표로 돌아온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 확대를 목표로 돌아온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 확대를 목표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법인이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설기구는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법인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이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가 상설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총장선출제를 바꾸고자 했던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1월 제11대 조경원 총장이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
행정적·형식적 소통 대신
따듯한 소통
”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



“
학교에 대한 만족감 고취가
가장 중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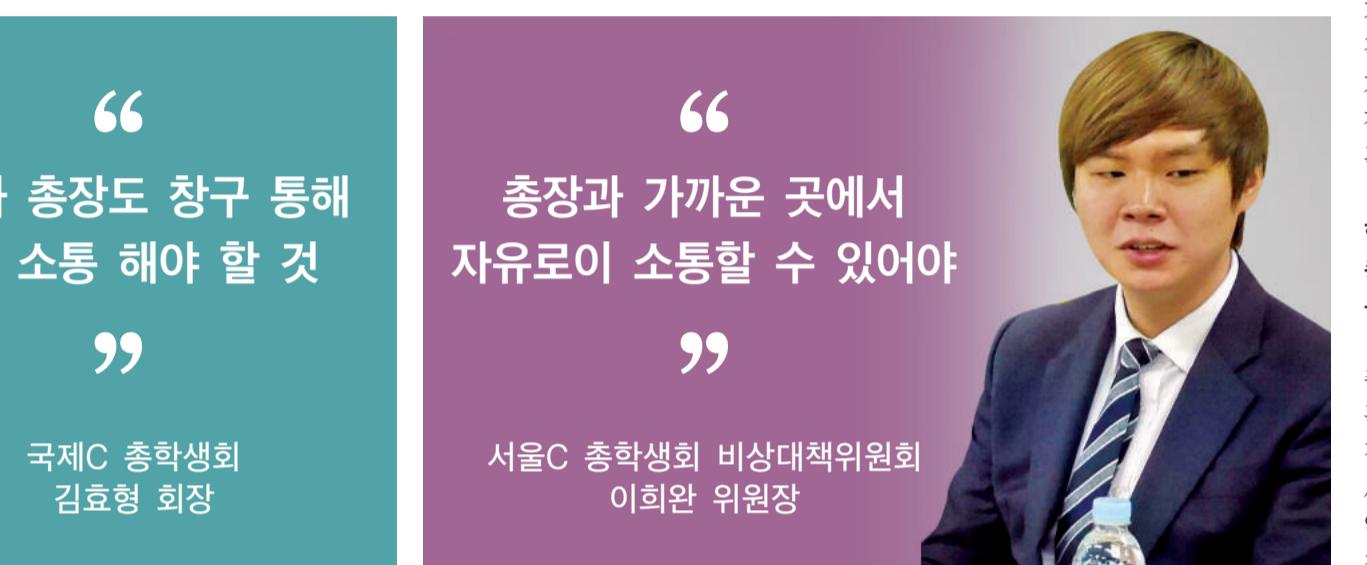
서울C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윤단비 위원장

“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필요
”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



“
학생과 총장도 창구 통해
직접 소통 해야 할 것
”

국제C 총학생회
김효형 회장

“
총장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어야
”

서울C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희완 위원장

하는가?

이성근 : 국립대학의 주인이 학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인 것처럼, 냉정하게 보면 사립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나 교수 아니라 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직선제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반드시 투표로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선제는 간접제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ly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종현 : 각 구성원이 생각하는 투표 비율의 공정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객관성이 생길 수 있다. 꼭 투표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총장 선거 과정을 완전히 개방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선제와 간접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져갈 순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 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종현 : 학생들 입장에서도 후보자의 소속보다는 역량을 통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차례의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종현 : 각 구성원이 생각하는 투표 비율의 공정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객관성이 생길 수 있다. 꼭 투표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총장 선거 과정을 완전히 개방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선제와 간접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져갈 순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 되는 않을 것 같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회 : 각 집단에서 총장 후보자로 암투한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를 각 집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낸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

이성근 :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해보기 위해서는 정체를 두거나 전제로 독자들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장이 선출되는 그 시점까지 대학의 미디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학주보에서 기사를 쓸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